



김일권 작 '무제'

순천만의 환상적인 풍경을 추상으로 풀어내고 있는 서양화가 김일권(전남대 여수캠퍼스 교수)씨가 오는 23일 미국 뉴욕 맨해튼 록펠러플라자에서 열리는 크리스티 경매에 참여한다.

이 경매에는 김환기·김홍수·김창열·강익중 씨 등 국내 대표 작가들도 참여하며 지역 작가로는 김일권씨가 유일하다.

김씨는 이번 경매에서 기존의 풍경화를 추상개념으로 접목시켜 명상의 세계를 연출한 신작을 내놓는다. 한결 부드러운 녹색과 자줏빛 등이 매우 정교하게 섞여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 작품들이다.

크리스티 경매는 세계경제 회복세에 따라 지난해 최대의 호황을 누리는 등 현대 미술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 미술 시장이다.

서양화가 김일권, 美 크리스티 경매 참여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홍콩서 개인전

나인갤러리, 국제 아트페어에 작품 출품

지역 작가들이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 초청되는 등 봄을 맞은 지역 미술계가 활발한 해외 활동에 나섰다.



최향 작 '파꽃은 바람에 흩날리고'

학교에서 '뉴미디어아트 고전회화와 현대 매체의 조우'를 주제로 특강을 했고, 제3회 대한민국미술인상 청년작가상을 받았다.

지역의 대표 상업 화랑인 나인갤러리의 해외 진출도 눈에 띈다. 나인갤러리는 세계 3대 아트페어인 아모리쇼(3~6일)에 맞춰 열리는 '2011 Korean Art Show'에 참여한다.

이 아트페어에는 김혜경·홍원철·고근호·신양호·최향철 등이 참여한다.

또 다음달에는 중국 미술시장의 메카인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최대 아트페어 'CIGE'(4월21~24일)에 참여하고, 5월에는 대만 국제 당대 미술가 협회가 주최하는 'Art Revolution Taipei' 아트페어(5월11일~15일)에 출품한다. 나인갤러리는 이들 아트페어에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출품할 예정이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지역작가 해외서 역량 뽐낸다

이번 크리스티 경매는 일본과 한국의 대표 작가의 작품과 도자기, 검 등을 판매하는 특별전을 마련했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한 김씨는 '뉴욕시립대 존 제이갤러리', '뉴욕 아카데미 갤러리' 초대전을 비롯 국내외 개인·단체전에 참가했다. 뉴욕 시립대 존제이캠퍼스에서 연구교수로 역임했고, 뉴욕 앙드레 자르갤러리에서 기획전을 여는 등 해외 화단에서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씨도 홍콩에서 열린 개인전에서 작품 12점을 판매하고, 중국 화단에서 잇따라 러브콜을 받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홍콩 아트센터 파오 갤러리에서 열린 이씨의 개인전(2월18~26일)에는 홍콩 크리스티 경매 관계자와 중국 박물관 미술관계자 300여명이 몰렸다. 또 사우스모닝차이나 등 현지 언론 12개사가 이 전시를 비중있게 보도하는 등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번 전시에서 이씨는 유명 명화의 원본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움직이게 한 작품과 가상현실을 소재로 한 작품을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그는 조선대 미술대학과 대학원, 연세대 영상대학원 출신으로 '아트유클론 2008' 한국 작가로 선정됐다. 지난해 미국 스미소니언 미술관 한국관 개관 기념 초대전, 독일의 미디어 아트 전시장인 ZKM에서 전시회를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 예술대

세기의 연인 '알랭 들롱' 만나러 갈까요

‘태양은 가득히’ 등 대표작 6편 10~17일 광주극장 상영

푸른눈의 우수에 어린 눈빛으로 많은 영화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알랭 들롱의 대표작을 만날 수 있는 영화제가 열린다.

광주시네마테크는 프랑스 출신 명배우 알랭 들롱의 작품을 소개하는 '알랭 들롱'특별전을 10~17일까지 광주극장에서 개최한다.

'미남배우'의 대명사로 꼽히는 알랭 들롱은 냉소적인 표정과 고뇌어린 연기로 유럽 거장 감독들의 러브콜을 받았던 인물이다. 상영작은 모두 6편이다.

르네 클레망 감독의 '태양은 가득히'(1960년·사진)는 리노 로타의 음악과 함께 알랭 들롱을 세기의 연인으로 각인시켰던 작품으로 주드로, 팻 데이먼 주연의 영화 '리플리'로 리메이크 되기도 했다.

골든글로브 최우수외국영화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프랑스 대표 배우 장 가뱅과 함께 출연한 '지하실의 멜로디'(1963년), 이브 몽탕과

함께 호흡을 맞춘 장 피에르 멜빌 감독의 범죄 영화 암흑가의 세사탑'(1970년)도 놓치기 아까운 작품이다.

그밖에 추적자의 이미지로 프랑스 영화에서 새로운 남성상을 창조했던 '무수 클라인'(1976년), 실제 연인이었던 독일의 신성 로마 슈나이더가 함께 출연, 화제가 되었던 '태양은 알고 있다'(1969년), 기이한 두 남녀의 엇갈린 욕망을 담은 '우리의 이야기'(1984년)가 상영된다.

12일 오후 2시 '태양은 가득히' 상영 후에는 영화평론가 김영진씨와 함께 배우 알랭 들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씨네마 톡 이벤트도 운영한다.

자세한 시간표는 홈페이지(<http://cafe.naver.com/cinemagwangju>)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호안 미로의 '환상세계'로 빠져볼까요

4~11일 광주신세계갤러리

조각·드로잉 등 29점 선보

광주신세계갤러리는 4~11일 20세기 초현실주의 대표작가인 호안 미로(Joan Miro·1893~1983년)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호안 미로의 조각, 드로잉, 판화 등 총 29점을 선보인다.

스페인 작가 호안 미로는 동심의 세계를 보여주듯 풍부한 색채와 상징적 기호로 꿈과 환상의 세계를 표현하면서 미술비평과 대중의 사랑을 동시에 받은 작가다.

이번 전시에는 조각, 드로잉, 판화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든 원숙미 넘치는 그의 후기 작업을 만나볼 수 있다.

드로잉 작품은 찢어진 종이의 형태와 느낌을 살리며, 다양한 재료를 복합적으로 사용해 대담한 실험정신을 느끼게 해준다. 또 장난기 넘치는 상상력으로 현실 공간에 환상과 유머를 결집한 조각도 관심을 끈다.

한편 1893년 스페인에서 출생한 그는 바르



'테테1'

셀로나 미술학교를 중퇴한 뒤 아이 같은 천진한 상징적 기호로 추상 회화를 선보였다.

또 1960년대에는 여성을 주제로 한 조각을 선보였고, 20세기 초·중반의 어둡고 부정적인 조형언어 속에서 풍부한 색채감, 원시성과 유아적인 미로만의 개성적인 작품을 발표했다.

문의 062-360-1630.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한국간행물윤리위

우수학술도서 공모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양성우)는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지원' 사업 학술도서를 공모한다.

지난 2010년 4월 1일부터 2011년 2월 28일 기간 중 국내에서 초판 발행된 학술도서를 대상으로 하며 희망자는 문화부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kpec.or.kr) 내 '우수도서 선정지원 시스템'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3일부터 1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제출자료는 신청도서별로 신청서 1부, 도서 2부, 대한출판문화협회 또는 국립중앙도서관 제출(납본)필증 사본 1부이다. 문의 02-2669-0726.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메타 필로스 첼리스트

심장병어린이돕기 연주회

음악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첼로 그룹 메타 필로스 첼리스트들이 심장병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연주회를 갖는다.

메타 필로스 첼리스트단은 7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8번째 정기연주회를 자신 음악회로 꾸민다.

그룹 이름 '메타필로스 첼리스트'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첼리스트를 뜻하며 지금까지 아이티 재단, 필리핀 산사태 이재민을 위한 구호 성금 모금 연주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연주회 레퍼토리는 슈베르트의 '음악에 부쳐', 바하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 차이코프스키의 '코미디언들의 춤', 한국 민요 '아리랑', '어메이징 그레이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등이다.

광주시립교향악단 첼로 수석으로 활동중인 박문경<사진>씨가 단장을 맡고 있으며 석민정·윤소희·김현정·김희경 씨 등이 참여하고 있다. www.metaphilos.com. /김미은기자 mekim@



제92주년 3.1절을 맞이하여 순국선열들의 뜻을 추모합니다.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며
우리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들의
송고한 열을 되새겨 봅니다.

IT 전문교육기관 —
국제직업전문학교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25-7번지
상담전화 ☎ 062-223-6123

이태리가구 직수입 도소매
홍스페이스

■ 상무점 : 화정동 사거리
☎ 062-382-0022
■ 문화전당점 : 문화전당 장동로터리 근처
☎ 062-226-7567

